

권씨테마관광 1

祖江, 그 和合의 강물 위로

정유년, 민족의 간절한 기원을 안고 한해가 저물어 간다



한해를 마감하는 '조강'의 일몰

權門의 길을 따라 가는 테마 코스의 첫 관문은 민족의 성지 마니산(摩尼山) 참성단(塹城壇)이 있는 강화, 그리고 그 북쪽 남북 분단의 현상인 교동에서 시작하려고 한다.

조강(祖江, 肇江)은 서해와 만나면서 염하(鹽河)가 된다. 할애비강(祖江)의 두 아들이 임진강과 한강이며, 임진강의 지류 한탄강이나, 한강의 두 갈래 남한강과 북한강은 손자 강이다.

북한강의 소양강이나 남한강의 동강과 서강은 증손자 강이 되는 셈이니, 한 조상 한 자손의 권문의 화합과 단결도 이와 같아야 할 것이다.

1. 강화군 교동면 삼선리 선암(仙巖) 문중



선암문중 재실

교동은 섬이지만 몇 년전 육속화 하였다. 여기 바로 앞 조강 넘어는 북한땅이다. 겨우 십리 넘어에 동포가 살고 있고 이 지역은 비무장지대로 평화의 지역이다.

1592년 임진왜란시 추밀공과 판서공 권엄(權嚴)의 손자 예조참의 선(鎭) 참의공의 증손 육전군수 권술(권술)이 김포 월곶진첨절제사로

임명되고 그 예하에 교동이 있으니 별장자리로 정한다. 그의 아들인 24세 통정대부 권처중(權處中)이 병자호란 때 복거하면서 자리를 잡은 것으로 추정된다. 처중의 묘는 교동 양감리에 있다.

권씨는 선암에 가장 많아서 선암문중 24세에서 32세까지 8대 66위에 대한 항례가 있다. 안동권씨추밀공파선암총회와 있다.

2. 강화군 교동면 동산리 금정골 죽치 권애라 생가



동산리 권애라 생가(왼쪽)와 만년의 죽치 권애라

영화 '밀정'의 모델 의열단 김시현의 부인인 애국지사 권애라(權愛羅 1897.2.2-1973.9.26) 여사의 생가가 있다.

2세 때 기독교 신자인 부친 권태신이 가문의 비난을 피해 강건너 개성망으로 도망치다시피 가게된다.

이후 호수돈여고, 이화여전, 개성유치원 교사, 3.1운동으로 유관순과 같이 피체,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인민대표회의(極東人民代表會議) 한민족 여성 대표로 참석했다. 여기서 의열단 김시현과의 운명적인 만남으로 레닌의 주례로 결혼했으나 대단한 여걸이다. 1942년 일본군 특무대 김창룡에게 아들과 같이 체포되어 1년간 고문당하고 해방으로 석방된다. 1967년 안동 국회 의원 출마등 파란만장하고 대단한 인물이다. 이제 <권애라.김시현 기념사업회>의 발전을 기원하고 權門은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3. 강화군 광천리 743-1 강화유수부, 고려궁지

권율(1537년~1599년)장군은 고조부 권마(權摩), 증조부 군수 권교(權橋), 조부 강화부사 권



강화고려궁지 안내도

직(權勳), 부친 영의정 권철(權鐵)인데 고조부 권마는 권랍의 동생이다. 권율이 조부인 권적이 강화부사 시절 강화유수부 인근에서 태어났다고 본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금 서대문 대신고등학교 뒤 권철 대감 집에서 태어났다고 비정하는 것이 더 맞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종신한 곳은 임진왜란 후 연로하여 사직하고 고향 강화로 돌아갔고, 후에 문집이 있었으나 병자호란 때 강화가 오랑캐에게 유린 될 때 불타고 하니 이 점 또한 불명확 하기도 하다. 그래도 강화유수부는 권율과의 상관성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4. 송해면 하도리 892 석주 권필의 유허지

권필(權驥 1569-1612)의 유허지는 원래 반환정(盤桓亭)이 있던 곳으로, 그 자리에 후손이 '石州權先生遺墟碑'를 세웠다. 반환정은 석주 권필이 유생을 강학하던 곳이다. 석주 권필선생은 조선 중기의 탁월한 시인으로서 한때 강화에서 많은 유생들을 가르치며 시화를 나는 인연을 갖고 있다. 선생의 자는 여장, 호는 석주, 본관은 안동, 권벽(權攀:1520-1583)의 아들이다.

권필은 송강 정철의 제자로 주로 남인 계열의 권문에 드물게 서인계열이다. 송강 처럼 그 또한 꽃꽂이 無冠의 시인으로 낭만적이고 사나이답게 살다가 갔다.

그의 생각이 잘 드러난 '술타령'이라는 시 한 수를 읽어보자!

"친구가 있을 때는 술이 없더니 술이 있으니 또한 친구가 없네 한 평생의 일이 모두 이와 같으니 절절 웃으며 홀로 서너 잔 술을 들이켜네."

강화도 喬洞의 중요성

(사)우리누리 평화운동 김영애 대표의 교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느낌은 새삼스럽다. "교동은 경제가 아닌 역사문화를 복원하여 남과 북이 교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상생의 문화를 창출하는 '통일의 관문 평화의 섬'으로 위상을 강화

해야한다. 통일은 군사력이나 자본주의로만 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70년의 교훈이다. 진정한 통일을 위해 우리는 피보다 뜨거운 눈물을 피보다 진한 땀을 흘려야 할 것이다. 우리민족의 우수성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찬란히 이어오는 흥

익영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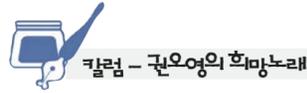
많은 수도권 시민들과 학생들이 교동도에 오고 있다. 이들이 미래 통일문화의 동력인 평화인성을 체험하고 창출해가는 학습을 하고 있다.

교동대교는 교동만을 위한 다리가 아니며, 교동에서 해주를 거쳐 신의주를 통해 유라시아로 나가는 진입로이다.

부산에서 목포에서 시작된 서해안 고속도로는 동해 철도가 시

베리아를 통해 유럽으로 나가는 길과 함께 문명대창출과 소통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며 민족부흥과 세계평화의 판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다.

그것은 지금은 하나의 섬이지만 일찍이 문명의 창구 역할을 하던 1000년의 교동의 역사가 이를 말해주고 여기에 자랑스런 우리 權門의 일파가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 조상의 흥복이라 아니할 수 없다.



나의 10大 教育觀



權五榮(북야공파, 35세, 울산총친회장)

나의 교육에 대한 생각은 지난 9월 인터뷰에서는 지면관계로 다섯가지로 줄인바 있다. 그래서 그 나머지를 소개 하고자 한다.

1. 4차산업의 개벽시대에 발맞추자!
2. 교육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별개의 사안이다.
3. 교사는 학생의 멘토요, 마니또 여야 한다.
4. 지역사회(울산)는 스승이다. 군인은 전술훈련보다 내무반(생활관)에서 만들어 진다!
5. 선현(도산 안창호 선생등)이 걸어간 길을 따라 가며 절으며 그를 본으로 삼자!

6. 전통사상은 검증된 인간의 길이다. 원시반본의 길만이 살길이다!

- 전통이란? 깨닫는 것이 아니요, 곰삭은 김치 같은 은은하면서도 오래가는 검증받은 '사고체계'이고 우리의 물질적 정신적 유전자에 가장 적합한 영향을 주는 것이니, 이를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 뿌리 없는 나무가 없듯이 전통의 올바른 이해야 말로 자기 존재의 당위성과 의미를 보장해주는 근본이며 이의 계승과 발전은 필수적인 것으로 이것이야말로 교육이라는 분야의 본질과도 같은 것이다.

- 그래서 전통사상의 회복은 곧 원시반본이니, 만사는 심복(+ .陰陽)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니 그것이 곧 고전교육이며 그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코리언의 天符易과 그의 아우인 周易을 학습하는 것이다.

7. 교육은 그 자체로서 만족이니 평생교육 인격형양, 일일일기로 실사구시 자립자생하자!

- 공자曰! 학이시습지면 불역열호아라!(배우고 익히니 즐겁지 아니한가?) 와 같이 배움은 그것 자체가 행복이며 쾌락의 일종인 것이니 이는 교육의 근본이고 이의 시행이 인간다운 삶, 생활의 방편을 만족시켜준다.

- 정신적 삶의 질을 높이는 '인격함양'과 물질적 생활의 질을 높이는 '기술습득'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것이니 이를 병진시키는 교육체계야말로 마차의 두 바퀴 처럼 안정되고 원활한 교육 체계의 핵심인 것이다.

- 이를 위하여 일일일기 교육을 통하여 생활의 방편으로 삼아 자립자생의 원칙에 충실하자는 것이니 이는 인간으로서 존재 가치를 아이덴티티의 확립과 함께 범법하는 가치체계로서 키워 나가야 하는 것이다.

8. 노인은 교육의 최대 자산이다. 그 피드백의 효용성은 시를 능가하지 못한다!

- 100세 시대에 노인은 넓은 세대로 소의 받고 수구의 상징으로 배척 받고 봉양의 대상으로 하대시 까지 하는 한심하고도 비인륜적인 세대가 도래한 것이지만, 노인은 결코 부채가 아니며 자산인 것이다.

- 아무리 AI가 발전해도 많은 변수가 있는 인물 평가와 사태의 핵심적인 분위기 파악은 많은 데이터가 축적된 노인의 생각을 따라 오기 어렵다는 것이니 이는 인간의 퍼지 기능이 기계적 합리적 체계 보다 우월하다는 것이다.

- '노인'을 자산화 하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 재화를 매몰시키는 정도를 넘어서, 또다른 갈등해소의 에너지 낭비까지 초래하는 기하급수적인 손실까지 각오해야하니 노인인력의 올바른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

9. 미래의 자산은 아이, 청년이니, 청년과의 소통, 자식을 이겨서는 안되는 부모가 되자!

- 역시 미래는 젊은이의 것이니, 이들의 세상을 위해 길을 열어 놔야 희망찬 내일이 열린다는 것은 자명하니, 결코 젊은이들의 앞길을 낚은 '사고'와 '틀'을 가지고 가로 막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니 이것이 '뉴 엘리트브 운동'인 것이다.

- 중요한 것은 소통과 이해인데, 다른 세상을 경험한 세대가 공동의 공간을 향유하면서 양보와 인내의 공간을 넓혀 나간다면, 그것이 곧 화해와 상생의 핵심이고 이것이 곧 '참교육'이라는 것이며 '참유신'이라는 것이다.

- 곧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니 미래는 그들의 것으로 설혹 부합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가는 길은 그들이 책임지도록 기원해 볼 뿐, 그들의 앞길을 '자신의 논리'로 막아서는 안된다.

10. 일만년 역사의 코리야의 정신의 정화 민본, 평등, 大公主義 정신을 구현하는 동학을 살리자!

- 인간은 '역사적인 동물'로서, 유사이래 비로소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한 것이며 '코리언'은 인류 시원의 천지광명과 우주원리를 체득한 일만년 민족사에 빛나는 존재이니 더욱 그러하다.

- '코리야 정신'은 민본과 평등과 대공의 사상이며 그 원리로 '홍익인간', '세계이화', '대동화평'의 엄청난 사상체계를 인류사에 빛나는 핵심사상이니 이의 유지,보급,선양은 곧 모든 교육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 이의 종착점이 근대 인류정신의 정화인 '동학'인 것이니 이는 '인내전'의 휴머니티와 '천인합일'의 사상은 공정무사, 만민평등으로 귀결되고 이의 계승이 바로 '대공주의'이니 이의 전개가 곧 '참교육'의 모든 것이다.



세무법인 확인

대표세무사: 권혁창(權赫昶) (010-3680-5057) 북야공파36대

업무내용

1. 세무업무 신고대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원천세
2. 세무업무 기장대리
3. 세무 상담 및 세무컨설팅
4. 재산세 관련 세무 상담 및 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5. 법인설립(창업), 기업합병 상담

<본사>

서울시 강서구 발산로 40
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501.2호
Tel) 02-2640-6565
Fax) 02-2640-6569
근무세무사: 권혁창, 정부혜

<동부지점>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물 업무동 10층 15,16호
Tel) 02-3435-6565
Fax) 02-3435-6568
근무세무사: 정대성, 김병재

<강원지점>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5
Tel) 033-375-7768
근무세무사: 김인섭

7명의 경력변호사가 여러분을 섬깁니다!

청주의 법률심장이(청주LAW)로서 청주의 길잡이(淸州路)가 되어 대한민국의 중심을 청주로 옮깁니다.



대표변호사 권태호

- 안동권씨 추밀공파 33세손
- 안동권씨 대종원 부총재(현)
- 안동권씨 충청북도 증친회장(현)
- 춘천지검장/대전고검차장검사
- 청주지검/인천지검 차장검사
- 서울동부/부산/광주지검 부장검사
- 서울/대구/부산/광주고검 검사
-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
- 대검찰청 과장, 법무부 검사
- 안산(초대)/충주지청장

구성원 변호사

대표변호사	유재풍	변호사	박종일
대표변호사	김준희	변호사	조성훈
변호사	오원근	변호사	권종원(제천)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4. (산남동657) 인텔변호사빌딩 7F(신법원 정문앞 네거리)
TEL. 043-290-4000(대표전화) FAX. 043-290-4050
www.cjlw.co.kr

민사/형사/행정/가사/군사 등 소송업무 일체, 기업체 법률자문, 외국법 자문
외국인 자문 및 대리, 등기/공증/세무 등 모든 법률업무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